

20세기는 인류역사에 있어 대단한 성장이 테올로기에 사로잡힌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경제개발이라는 화두를 붙들고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들의 엄청난 활동들이 만들어 낸 환경문제나 비인간화의 위기는 점차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압축적 성장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경우는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져 가고 있다.

또한 이런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가정책을 집행해 온 중앙정부도 거대한

준비하며 부분적으로 시민사회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시민사회 내에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의 중요성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사회복지의 역할과 섹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복지국가로 불리는 서구의 국가들은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그들은 국가중심의 사회복지제도를 끌고 오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사회복지사의 책무성



표 경 흠

사회사업가 표 경 흠은 사회복지정보원에서 복지순례, 사회복지대학생정예화캠프, 학습여행, 합숙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상지대, 평택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부설 가상복지관 및 성보나의집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현재는 사회복지개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한 유비쿼터스복지의 실현과 가상조직을 활용한 사회사업실천방법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교육 및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지역사회조직가 양성과정 트레이너와, 비영리조직 운영 및 진단 등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벤처 사회사업가이고,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공룡같이 비대해진 조직을 갖추고서 부패와 관료제의 대명사로 불리며,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정서적 거부감이 확산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사람들로 부터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불평은 쉽게 들을 수 있으며, 공무원 자신들의 자긍심도 낮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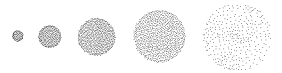
사회복지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과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사회복지계의 주장이 주류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복지 역할 준비해야

이제 우리 사회는 시민사회로의 편입을

다가 민간에게 협력을 요청하였고, 지금은 시장경제에 의한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민간중심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국가개입을 거쳐 시장원리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국가가 협력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아닌 감시와 통제중심의 역할에 충실한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개인지불능력이 생겨나고 향상되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바우처제도, 장기수발보호제도의 도입, 각종 수당 등이 당사자에게 직접 주어지는 제도로 전화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운영비는 크게 증가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복지제도의 시장원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다원화하려는 시도는 이미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에 포함되어 개인(자원봉사자와 기부), 기업(사회공헌활동), 종교계(사회복지시설 위탁) 등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시행에 따른 대응을 위한 우리의 준비도 점점 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임파워먼트를 통한 전문성 강화, 정체성 확립 필요

두 번째로 언급할 내용은 사회복지제도가 대상별(분야별)로 발달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전문성을 지닌 영역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당사자주의가 강화되면서 사회복지사들과의 갈등의 여지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지금 갈등의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를 통한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의 확립 필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 번째 변화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들고자 한다. 지방분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이미 사회복지계에서 충분히 하고 있으므로 필자는 개인적인 의견만을 다루고자 한다. 사회복지협의회나 각종 사회복지단체들의 중앙협회 등과 같은 중앙조직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지고 지역별 조직화가 강화되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중앙조직의 힘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고 준비를 해 가야 할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사들의 힘의 결집이 더

욱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현장의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책임성의 강화, 시민단체의 영향력 강화, 타영역의 심각한 도전, 신개념의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등장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최소공간으로 접근성을 강화하는 가상조직형 서비스 조직이 나타나고, 시민단체의 운동방향이 정치비판에서 복지비판으로 자리를 옮겨 갈 것이다. 또한 대학의 사회복지교육이 기술중심으로 전환되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교육에 관해서는 복지계 내부의 의견이 분분하여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다섯 번째로 사회체계의 변화를 언급하고자 한다. 세대의 문화와 가치가 변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직운영의 원리나 의사소통의 방법도 변화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폐쇄체계에서 개방체계로 position power에서 communication power로,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명령과 보고중심에서 설득과 경청이 중시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회체계의 변화는 민과 관이 협치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음을 말한다. 그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

끝으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지적은 이미 여러 매체들을 통해 전해진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끊임없는 소비의 촉진으로 유지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생존방식이다. 따라서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99:1 사회를 얘기하기도 한다. 1%의 사람들을 위한 세상, 99%의 사람들은 적당한 먹을거리와 오락거리로 유지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난해지는 세상이라면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우리의 역할은 점점 더 늘어나야 한다. 만일 그렇게 어려운 사회가 된다면 주도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세상

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또 하나 찾을 수 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이 빛난다고들 한다. 그 촛불의 주인공이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의 방향이 점차 Helping process에서 Impowering으로 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공급자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욕구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소비자로 원조에서 자립으로의 변화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사회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사회복지사가 서 있어야 하며, 어떠한 복지서비스도 사회복지사의 질을 넘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언급했던 사회변화 외에도 많은 사회환경의 변화들이 있겠으나 필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다 언급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두며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한 언급은 간단하게나마 짚어 보았으나, 필자에게 주어진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사의 책무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언급할 것을 약속드린다.

필자는 다음호 연재에서 사회복지조직의 책무성과 사회복지사의 책무성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난 후, 그 다음호에 세 번째 글로 임파워먼트의 개념과 차원, 그리고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이론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면을 채워갈 계획이다.

부족하더라도 다음 호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